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98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4.28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시 교독 <시편84편> 다같이

(인도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도들)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인도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인도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도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도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인도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도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인도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회 기도 <나, 이웃, 교회, 나라, 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산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레위기 25:8-17>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다같이

말씀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 3 F

사랑의나눔 있는곳에하나님께서계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주의 은혜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8-12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세어라. 안식년이 일곱 번이면 마흔아홉 해가 된다. 일곱째 달 십 일, 곧 속죄일에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오십 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13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14-17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을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햇수가 적게 남았으면 돈이 덜 되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파는 것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감사찬양

주의 은혜라

blog.naver.com/suneun0691

Words & Music by 손경민

FM7 Em7 Dm7 C/E

5 FM7 C/E Dm7 F/G G

10 C Em F G 내 평
생 살 아 온 길 뒤 돌아 보 니 짧 은

14 C Em F G7 C C/E
내 인 생 길 오 직 주 의 은 혜 라 주 의

18 FM7 C/E FM7 C/E
은 혜 라 주 의 은 혜 라 내 평 생 살 아 온 길 주 의

22 FM7 E/G# Am7 Em7 FM7 G
은 혜 라 주 의 은 혜 라 다 함 이 없 는 사 랑

27 G7 C Em F G
달 려 갈 길 모 두 마 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 는

32 C Em F G7 C
공 로 전 혀 없 도 다 오 직 주 의 은 혜 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3:00
사모공동체 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3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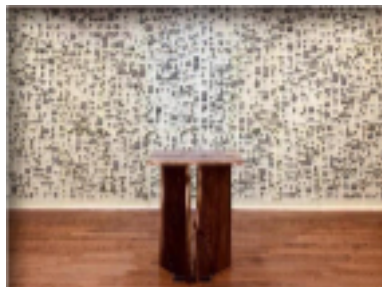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 마침 감사

지난주 토요일까지 담임목사님의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이 마쳤습니다. 은혜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중보에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 섬김 감사

오늘 점심식사로 섬겨주신 장천, 장현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5.26 - 김점순 집사 6월 - 권종신, 이길주 목사 / 7월 - 박사무엘, 전정민 전도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담임목사 이번주 사역

오늘 오후 2시 한양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설교
화요일 오전9:30 서울서북노회 정기노회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성경공부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특별모임 (오후10:00-오후11:00, 온라인)
매주 금요일 사모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이메일 iam@theway.news